

석유화학, 이란 수출 “전면중단”

KIEP, 미국 제재로 금융거래 차질 ... 플랜트·건설 분야도 타격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국의 포괄적 이란제재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제재로 이란과의 금융거래가 잠정적으로 중단됨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산업, 플랜트, 건설 부문에서 이란과의 거래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국내 은행들이 이란과의 수출입 관련 금융거래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국내기업들의 수출이 전면중단 상태에 놓였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이란에 동시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들은 이란시장 진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유기업, 석유화학기업들이 이란 제재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중기적으로는 건설, 플랜트 부문에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와 경험 축적의 기회로 이어져 중동 플랜트 시장에서 중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2005-09년에 이란의 에너지 및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에 참여한 41개의 외국기업 중 7사가 미국 정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며 국내 업으로는 대림건설, 현대중공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KIEP는 미국의 이란 제재법안에 대한 해석과 기존 사업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국제사회의 독자적인 제재가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세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08/05>